

통속극, 여성과 판타지에서 길을 찾다

이준목

드라마는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현실의 ‘욕망’을 반영하는 대중예술이다. 상업적인 드라마들은 모두 통속(通俗)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곧 그 시대의 풍속이나 유행, 사회상과 무관할 수 없다.

최근 안방극장은 ‘통속극의 르네상스기’로 불린다. 스케일이 큰 사극이나 전문직 이야기 같은 이른바 ‘장르물’보다 가족주의와 로맨스, 청춘물, 직장담 등 주로 비전문적이고 일반 대중에게 쉽게 통할 수 있는 통속적인 소재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최근의 통속극 열풍 뒤에는 과거와 달리 ‘막장’이라는 용어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붙는다는 점이다. <꽃보다 남자>, <아내의 유혹>, <내조의 여왕> 이 세 작품은 상반기 통속극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대표적인 흥행작들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사회적 신드롬으로 불릴 만큼 높은 인기를 끌었지만, 한편으로 영성한 완성도와 선정적이고 패륜적인 설정, 간접광고의 남발, 비현실적인 요소의 과잉 등으로 ‘막장 드라마’라는 빈축을 샀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기 다른 소재와 연출방식을 지닌 통속극들을 ‘막장’이라는 코드로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주로 실제 일상에서는 있을 법하지 않은 소재와 상황을 다루거나, 이야기의 전개가 지나치게 우연적인 요소에 의존하는 드라마를 비이념델 때 쓰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막장 드라마를 구분하는 특성은 결국 ‘비현실성’과 ‘선정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드라마라는 것은 결국 픽션이고, 어느 정도 비현실적이면서 상업적인 코드와의 절충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 이야기 안에서 전개되는 양상이 얼마나 설득력과 공감대를 갖추고 있는가에 달렸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통속극들이 이야기의 개연성이라는 측면에서 약점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속극에 담긴 욕망의 코드들

이러한 비현실적인 통속극이 왜 인기를 얻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품을 구성하는 주체와 그 수요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통속극의 주역은 여성이다. 최근 1년간 성공한 통속극들을 돌아보아도 <태양의 여자>, <엄마가 뽀뽀>, <꽃보다 남자>, <너는 내 운명>, <아내의 유혹>, <내조의 여왕> 등 제목에서 여성 취향적인 코드를 읽을 수 있거나, ‘여성’들이 이야기의 직접적인 주체로 등장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동명만화와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꽃보다 남자>는 리메이크작이라는 한계와 해외 원작이라는 정서적 차이에도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는 F4로 불리는 꽃미남 배우들의 비주얼과 탄탄한 원작의 힘도 바탕이 되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획에

쏟아진 여성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수요에 있었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 닐슨미디어리서치의 조사 결과, <꽃보다 남자> 방영 중 성별 평균 시청률은 여성이 6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특히 연령대별 시청률에서는 예상을 깨고 20~30대 이상 성인 여성 시청자의 선호도가 10대 여성을 더 능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꽃보다 남자> 이 단순히 소녀 취향의 팬덤에 의존한 단순 트렌디 드라마 이상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꽃보다 남자>의 F4는 한마디로 캐릭터 자체가 ‘아이돌’ 집단이다. 연예인은 아니지만 상류층 귀족인 이들은 매혹적인 외모와 근사한 옷차림을 갖추고 물질적 부와 명예를 과시하며 굳이 노력하지 않고도 여성들을 유혹한다. 남성들이 소녀시대나 원더걸스 같은 걸그룹을 보면서 느끼는 대리만족을 여성들은 드라마를 통해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굳이 <꽃보다 남자>만이 아니더라도, <궁>, <커피프린스 1호점>,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 <쌍화점>처럼 이른바 ‘꽃미남’이 단체로 나오는 대중문화 상품(만화, 영화, 드라마)들이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드라마의 주요 소비 계층인 여성 시청자들이 이러한 소재의 이야기에 갈증을 느껴왔다고도 볼 수 있다.

<꽃보다 남자>류의 작품들에서 대중이 원하는 것은 내러티브의 완성도 보다는 얼마나 시청각적인 이미지를 만족시켜줄 수 있느냐이다. 그 속에는 답답한 일상을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다는 현실도피적 정서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대한 대리만족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평범한 소녀로 왕따까지 당하던 금잔디는 구준표라는 왕자의 간택을 받으면서 압도적인 물질의 혜택과 보호를 받는 신데렐라가 되고, 하루아침에 사회적 신분까지 동반 상승한다.

<꽃보다 남자>이 미혼 여성들의 판타지라면, <아내의 유혹>은 가부장제에서 억압된 기혼 여성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친구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임신한 채로 남편에게 ‘살해당할 뻔’ 했던 여자가 복수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여자로 변신해 남편을 유혹한다는 충격적인 설정은 ‘현대판 몬테크 리스토’를 연상시킨다.

드라마는 납치, 사기, 협박, 감금, 자살 등 최근 방송된 그 어떤 범죄 드라마보다도 강도 높은 자극적인 ‘사건종합선물세트’를 보여주지만, 정작 사건의 인과관계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사실 상당히 허술했다. 구은재가 눈 아래 점 하나 찍고 ‘민소회’로 거듭난다든가, 평범한 전업주부가 삼시간에 만능 엔터테이너이자 커리어우먼으로 거듭나는 과정의 묘사는 안이하게 처리되어 있다. 하지만 <아내의 유혹>은 오히려 이러한 판타지성을 극한으로 밀어붙인다. 버림받은 ‘조강지처’ 구은재의 복수에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한국 여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남편과 시댁에 대한 저항심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다. 복수를 위해 신분을 숨기고 남편과 다시 결혼해 시댁에 들어가는 구은재의 목표는 잃어버린 자신의 자리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착취해오던 남편과 시어머니를 비롯하여 시댁을 향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복수라는 통쾌한 한풀이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안긴다.

<꽃보다 남자>이나 <아내의 유혹>이 대중의 취향을 건드리는 공통적인 전략은 가장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가장 현실적인 욕망을 구현해 냈다는 데 있다. 두 작품은 시작에서 끝까지 논리적인 일관성이나 개연성을 무시한 ‘뻔뻔한 전개’가 특징이다. 드라마가 제공하는 현실이란, 결국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보고 싶어 하는 가상의 현실이다.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는 여성들의 판타지다. 그를 구성하는 캐릭터

의 매력은 상당 부분 물질적인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 가진 것 하나 없으면서 변덕스럽고 성격 까칠한 나쁜 남자라면 기준표가 그토록 매력적으로 묘사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동화 같은 저택, 자가용, 전용기 등 기준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갖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는 달콤한 판타지의 세계이며, 그 중심에 기준표가 있다. 철저하게 소비지향적인 기준표와 F4의 캐릭터는 <꽃보다 남자>이라는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CF 속 왕자님들이다.

<아내의 유혹>의 구은재는 ‘줌마렐라’의 표상이다. 구은재라는 인물의 완벽한 변신은 아줌마가 여성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그녀가 누리려는 미모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갈망도 알고 보면 타인의 물질적 지원 속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금잔디나 구은재가 겪게 되는 사건들은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나기 힘든 우연의 남발이지만, 이는 두 작품이 제공하는 시청각적인 판타지를 있는 그대로 즐기기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시청자들이 전후 상황을 논리적으로 따질 틈도 주지 않는 이야기 진행의 엄청난 속도감이나 정극과 희극의 경계선을 수시로 허무는 ‘고의로 과장된’ 캐릭터 같은 주변 환경들은, 드라마의 판타지성을 보조하는 장치들이다.

이에 반해 <내조의 여왕>은 비슷한 통속적인 요소들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꽃보다 남자>이나 <아내의 유혹>와는 다소 다른 방향성을 보여준다.

회사 ‘퀵푸드’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직장 남성들과 그들의 아내를 둘러싼 복마전은 <꽃보다 남자>이나 <아내의 유혹>에 비해 배경과 소재 면에서 훨씬 현실적이다. 드라마에서 ‘내조’란 남편과 아내가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팀플레이’의 또 다른 이름이다. 현대 사회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남편과 아내, 직장과 가정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다.

드라마는 한국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처세’에 관련한 보고서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행복의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라는 양면성에 대한 질문으로 진화한다. 등장인물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회사라는 이름의 사회를 통하여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정체성은 희미해진다. 그 속에는 지금 한국인이 지향하는 행복의 양면성에 대한 진지한 페이스스가 담겨 있다.

물론 <내조의 여왕>에도 통속극의 전형적인 요소들이 있다. 재벌가 사장이 기혼 여성에게 반해 멋진 노래를 불러주고, 극중 부부들의 스와핑을 연상시키는 불륜적인 설정들이 그러하다. 하지만 <내조의 여왕>은 이러한 전형성을 자극적으로 남발하지 않고도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확장시키는 장치로 사용했다.

<내조의 여왕> 속 등장인물들은 오히려 저마다 결핍된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서열을 벗어난 만남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우치며 서로를 치유해나간다. 물질적 행복은 있어도 서로 간의 신뢰와 애정이 없는 부부, 서로 깊이 사랑하지만 경제적 무능과 우유부단함 때문에 위기에 처한 부부. 과연 어느 쪽이 더 행복하고 어느 쪽이 더 불행할까?

<내조의 여왕>이 기존 통속극들과 다소 방향을 달리한 것은 최근 통속극이 지향하는 ‘여성 취향’과 ‘판타지성’을 굳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대한 일상적 공감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적인 구조 안에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일정한 메시지를 유도할 수 있는 논리적·철학적 깊이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자극적 ‘소재주의’에 매몰되어가는 최근의 한국형 통속극에 그나마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왕’과 ‘초식남’ : 드라마 속 남녀 성역할의 위상 변화

이러한 통속극의 중심에는 한결같이 전투력 높은 여성 캐릭터들이 있다. 과거 드라마에는 선녀와 악녀의 구분이 명확했다. 그러나 이제 드라마에서 선녀와 악녀를 쉽게 구분하기란 힘들다. <태양의 여자>, <미워도 다시 한 번>, <아내의 유혹>, <하얀 거짓말>은 ‘강한 여자’들의 일대일 대결 구도가 두드러진다. <천추태후>나 <자명고>, <선덕여왕>은 남자들을 호령하는 ‘여성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운다.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의 고정관념도 변화하고 있다. <아내가 빨났다>의 김한자(김혜자)는 드라마 후반에 엄마의 의무에서 벗어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의 한명인(최명길)이나 <하얀 거짓말>의 신 회장(김해숙)은 대기업의 CEO이며, 극중에서 남자들을 압도하는 ‘절대 권력자’로 등장한다. 그들은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로서의 한정된 역할을 거부하고 당당한 커리어우먼이자 ‘멜로’의 주인공으로 복잡한 연애편호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성 캐릭터들의 성격 역시 점점 더 개인적이고 소비지향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들의 활동무대는 더 이상 가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아니며, 가정의 행복이나 사랑하는 이를 위한 희생같은 전통적 덕목에서 벗어나 ‘나의 행복’, ‘지금 현실의 행복’을 부르짖는 현재적 캐릭터로 진화했다.

또한 요즘 여성 캐릭터들은 이에 머물지 않고, 대중문화에서 소비하던 전통적인 여성상의 틀을 깨고 나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세상으로 뛰쳐나온 권력지향적 여성상을 보여준다. 여기서 전제는 여자로 당당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모나 경제적 능력이어도 좋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거머쥌 수 있는 권모술수여도 좋다.

그리고 여성의 적은 곧 여자다. <태양의 여자>에서 신도영(김지수)과 윤사월(이하나)의 대결, <아내의 유혹>에서 구은재(장서희)와 신애리(김서형)의 대결은 단지 잃어버린 사랑을 찾거나 신데렐라를 선발하는 과정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 간의 '사회적 지위와 운명을 건' 건곤일척의 한판승부다. 이는 과거 남성들의 권력투쟁과도 큰 차이가 없다. 한때 브라운관을 장악했던 '나쁜 남자'보다 더 치명적인 '나쁜 여자'들은 공주나 사모님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권력을 움켜쥔 여왕이 되기 위해 투쟁한다.

드라마 속 여성의 위상이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드라마 속 남성들의 역할도 변하고 있다. 한때 브라운관을 강한 남자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무모하고 저돌적인 열혈남아의 캐릭터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아내의 유혹>이나 <태양의 여자>에서 실질적으로 남성들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미미했다. <남자이야기>나 <2009 외인구단>처럼 전통적인 마초 남성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들이 큰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 반면 최근 20~30대 젊은 층에서는 마초 대신 '초식남'으로 불릴 만큼 온순하며 자기애가 강한 남성 캐릭터들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성 중심의 드라마 속에서 남성들의 역할은 혼돈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 속에는 마초와 초식남의 성향을 반쪽씩 겸비한 캐릭터들이 대거 눈에 띈다. 강인함 결단성 같은 남자다운 강점은 지키면서 때에 따라 포용과 인내, 섬세함이라는 여성적 매력을 겸비한 외유내강형의 캐릭터가 각광받고 있다. 남자다움을 드러내는 가부장적인 캐릭터들은 정극 속에서 점점 희화화된다. 오히려 강한 척하면서 한편으로 어눌한 인간미를 드러내

는 ‘귀여운 마초’ 캐릭터들이 득세하고 있다. <꽃보다 남자>의 F4나 <내조의 여왕>에 등장한 태준(윤상현)·준혁(최철호)·달수(오지호)는 ‘강한 척하지만 실은 약한’ 요즘 남성들의 과도기적 성향을 대변하는 캐릭터들이다.

‘이루어질 것 같은 현실’과 ‘이루고 싶은 현실’ 사이

이처럼 최근 통속극을 지탱하고 있는 비현실적·선정적 요소들이란, 곧 그 시대의 대중들이 갈망하는 판타지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판타지에 더해 팍팍하고 고된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막장 드라마라는 ‘필요악’을 만들어낸 셈이다.

드라마가 보여주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리얼리티가 아니라 가공의 현실이다. 이것은 ‘이루어질 것 같은 실제적 현실’과 ‘이루고 싶은 가상현실’로 나누어진다. 불륜, 복수, 왕따, 출생의 비밀, 엇갈린 가족사 등은 드라마의 진행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사건이지만 언젠든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드라마는 등장인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극단의 상황을 먼저 제시하여 공감과 연민을 불러일으킨 뒤에 곧이어 고단한 일상을 위로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제시한다. 금잔디와 구은재, 천지애의 곁에는 언제나 그들을 보듬어주는 백마탄 왕자님들이 존재하고, 평범한 서민 여성이나 아줌마라는 틀을 벗어나 인생역전의 기회를 맞이한다.

물론 이런 작품들이 정치적으로 옳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다분히 현실도피적이고 퇴행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통속극의 억지스럽고 비상식적 상황 설정은 오히려 오늘날의 현실에서 더 자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신문이나 인터넷, TV 뉴스를 통해, 이른바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수시로 접할 수 있다.

정치·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순적인 현상들, 유명 정치인과 여배우의 자살 등 결코 있을 것 같지 않은 만화적인 사건들이 어느 날 현실이 되어 다가오는 세상은, 드라마보다 더욱 극적이며 가상현실의 선정성에 대한 자극을 오히려 무색하게 만든다.

대중예술로서의 드라마가 곧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했을 때, 그 시대를 구성하는 사회제도와 구조라든지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크게 요동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여러 갈래로 교란되는 상황은 곧 대중예술의 트렌드와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황기 서민 대중들의 일상적 삶의 모습이 혼돈 속에 휩싸이고 있는 모습은, 바로 오늘날 드라마의 현실도피적이고 소비지향적 구조를 통한 대리만족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국 드라마를 구성하고 있는 비현실성과 선정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해석할 소지가 있다. 극중 가상현실은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대중의 무의식적인 욕망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통속극은 이러한 가치관의 혼돈 현상이 빚어낸 삶의 풍경을 담아내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드라마가 만드는 가상의 세계 속에 안주하기보다는 ‘이루고 싶은 실제적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아닐까. 다소 과장되지만 조금 덜어내면, 우리 자신의 욕망을 드라마라는 장르를 통해 투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영화보다 더 절박한 우리의 현실이 곧 하나의 거대한 통속극인 셈이다. 이것이 드라마는 ‘대중에게 꿈과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식의 도덕적 모범답안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욕망을 솔직히 까발리는 통속극에 열광하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일반부문 우수작 | 통속극, 여성과 판타지에서 길을 찾다



학생부문 우수작